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운동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

The Identity and Some Practical Suggestions of The Demolishing Walls Campaign in Daegu City

김수봉*
Kim, Soo-Bong

정응호**
Jung, Eung-Ho

이승지***
Lee, Seung-JI

Abstrac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molishing Walls Campaign has started in Daegu. Recently, the campaign influenced to the other cities in Korea, such as Seoul, Incheon and Busan with various names regarding cities' circumstances. In these context, the study aims to highlight the identity of the Demolishing Walls Campaign compare Daegu with other cities where similar movement has started. In addition, the study evaluates the campaign in term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s to suggest some practical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mpaign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identity of the Daegu Campaign is started by bottom-up approach based on citizens' participation compare with others cities' campaigns which are mainly started by the local government so called top-down method. The Daegu campaign influences the local people aware of their potential abilities in positively improving urban environment. The results of survey also highlights the advantages of green spaces which by the campaign in terms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aspects. Newly generating urban greens accept and store heat which influences urban microclimate conditions and it possibly affects energy savings of the city. Most of survey participants eager to continue this campaign which shows positive results in various aspects by the local people. Therefore, the city government building a coalition of local people, NGOs, and interest group to keep the identity of the campaign in Daegu.

Keywords : Demolishing Walls Campaign, NGO, bottom-up approach

주요어 : 담장허물기, 비정부기구, 상향식접근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개발논리에 치중한 토지이용으로 인해 녹지공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도시 내의 제도적인 녹지 또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도시 계획에서 항상 뒤로 밀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대도시 공간은 인간관계를 해체시키고, 비인간적 요소가 넘쳐나는 삭막한 터가 되고 말았다.

담장은 오랜 세월동안 재산의 경계표시, 외부로부터 침입방지, 사생활 보호 등의 기능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이른바 웰빙(Well-Being)시

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파트 뿐 아니라 주택지에서도 친환경적 주거시설과 녹지조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은 한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사회운동가의 작은 시도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 오고 있다. 이것은 삭막한 도시주택가에 녹지를 조성하여 썬지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웃간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에 21세기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수성이 짙은 경상도의 중심 도시인 대구시에서 이러한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고,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연구로도 이어졌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 된지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난 10년간의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의 성과와 타 도시로 전파된 담장허물기운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운동으로 인한 도시 공간 생활공동체 의식의 변화 및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고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을 21세기 도시녹지계획의 새로운 패

*정회원(주저자), 계명대학교 환경계획과 부교수, 환경계획학박사

**정회원, 계명대학교 환경계획과 조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리다임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다른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내용 뿐 아니라 사례 현황을 직접조사하고, 담장허물기 운동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사례에 비중을 두어 설문과 인터뷰 중심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의 과정을 통하여 대구시민들이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구시 담장허물기의 진행 여부와 그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지로는 대구시의 개인주택가 중 담장허물기운동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시 중구 삼덕동, 수성구 황금동과 지산동 일대를 연구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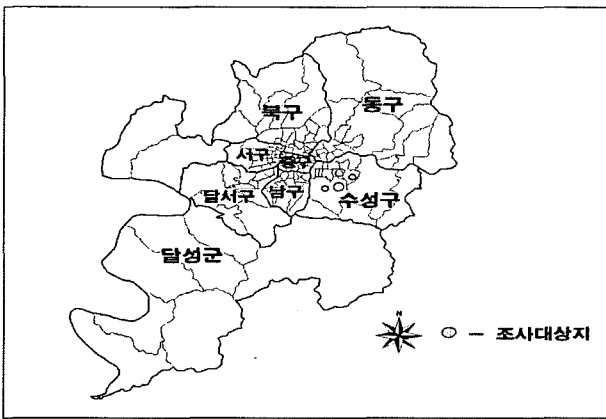


그림 1. 설문조사 대상지 위치도

3. 최근 연구동향

담장허물기운동이 1996년 처음으로 시행되어 지금까지 햇수로 10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구에서 시작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담장허물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최근 들어 담장허물기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례연구로 문승국(1998)은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전반적인 마을만들기의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고,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을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와 비교하여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정석(2000)의 연구도 발표되었다. 또한 이시화 등(2001)은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을 사례 분석하여 그 추진전략을 체계화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며,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시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살고 싶은 삶터가꾸기 전략을 연구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담장허물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정응호의 3인(2002)의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에서는 우리고장의 담장허물기 운동의 현황과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여 담장허물기운동으로 인한 생활공간의 변화와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담장허물기 운동의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김수봉(2004)은 ‘한국의 공동체 도시환경 개선사업 평가 :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 사업을 사례로’에서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공동체 형성의 특성 및 원리 그리고 대중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시된 다양한 실천전략 등을 분석하여 이 사업이 한국의 공동체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서의 의의를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담장허물기운동의 전개 및 현황

1. 담장허물기운동의 전개

대구시의 담장허물기는 1996년 서구청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나무와 식물로 조경을 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꿈으로써 시작되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개별주택에서의 담장허물기 참여가 전혀 없었으나, 1998년 11월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한 시민이 “담을 트면 정원이 넓게 보이고 햇볕도 많이 들어와서 좋을 것 같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주인을 설득하여 담장을 허물기 시작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이 담장허물기를 시작하여 중구 삼덕동에서는 삼덕동의 동네 골목정원꾸미기(꾸러기환경그림대회·병뚜껍벽화그리기 등)로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골목공원에 대한 관심과 파장은 점차 확대되어 대구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도심상권의 이동에 의한 공원의 환경이 우범지화되고 있던 경상감영공원의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중 1997년 8월에 경상감영공원의 재조성과 함께 담장허물기가 이루어졌으며, 조성 후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북 대학병원의 담장허물기가 시민의 호응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지자 대구시에서 강력한 권유로 경북대학교 의·치과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최초로 담장허물기를 시행하였다. 대구시는 시민사회에서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는 담장허물기를 그 전까지는 대구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 사업을 범시민적운동차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1999년 5월 마침내 대구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대구사랑운동”의 중점과제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담장허물기는 와해되어가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여유롭고 정감 넘치는 대구를 건설하기 위해 민·관·학 파트너십에 의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 담장허물기운동의 담장개방 현황

1996년부터 2005년 7월말에 이르기까지의 담장허물기 추진 실적은 <표 1>과 같다. 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표 1. 연도별 추진 실적

(2005년 7월말 기준)

구분	계	1999년 이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참여시설수 (개소)	345	65	62	52	63	52	35	16
허문답의 길이 (m)	16,718	3,507	3,596	3,069	2,849	1,942	1,439	316
조경면적 (평)	78,005	27,935	17,636	19,054	4,534	5,737	2,685	424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담장을 허물고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즉,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기에 사업실적이 미비하였다. 그러나 1998년 민간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계기로 1999년에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에서 중점과제로 담장허물기 시민운동을 채택함으로써 실적건수가 급격히 늘어나 50~60여건으로 상승하였다. 2005년 7월말 현재, 사업을 통해 담장을 허문 총 길이는 16,718m이고, 조경면적은 총 78,005평에 이른다.

조경면적은 총면적 77,581평 중에서 공공 의료시설이 가장 많은 42,829평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공서(20,574평), 학교(9,969평)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시행초기에는 시내 중심부에서 점차 시내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 329개의 참여시설수 중에 수성구가 85개소로 가장 많이 참여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구 48개소, 중구 36개소, 달서구 34개소, 북구 31개소, 달성군 30개소, 서구 24개소 순으로 담장을 허물었다. 또한 담장허물기를 시행한 곳 중에서 주택의 연도별 실적은 1999년부터 2005년 2월말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수행한 단독주택의 담장허물기 실적은 모두 91건으로 전체 사업 329건 가운데 약 2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이 32건으로 사업실적이 가장 좋은데 각 년도에 따라 실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타 도시의 담장허물기운동 사례 및 비교

1) 서울시 ‘그린파킹 2006’

서울시에서는 최근 주택지의 주차문제가 주민들 간의 분쟁의 이유가 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개인 주택의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그린파킹 2006’ 사업이다. 서울시의 ‘그린파킹 2006’ 사업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의 동의로 개인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지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주민이 담장허물기에 동의한 경우 서울시에서 공사비 일체와 조경시설비를 지원하고 보완 및 범죄발생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위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골목길별로 폐쇄회로 TV까지 설치해준다. 그리고 이면 도로의 차로 폭을 줄여 불법주차공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를 이용한 여유 공간은 보행자들을 위한 보도와 녹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이다. 사업의 진행과정은 먼저 골목별 설명회

를 거쳐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 등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주택지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큰 성과를 이해시킴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담장허물기 현황은 총 대상 주택 3,086동 중 신청비율은 2004년 8월말 현재 약 48%이고, 담장허물기 공사는 813동을 완료했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추가 동의 가구는 증가 중에 있다. 그러나 담장허물기를 시행한 후 처음 지원 조건과는 다르게 감시 카메라의 미작동과 담장허물기로 형성된 주택마당의 개인 화분 등의 분실로 인해서 주민들은 범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담장허물기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지자체의 강제성으로 시행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맞고 있다.¹⁾

2) 인천시 ‘300만 그루 나무 심기’사업

인천광역시는 도시의 녹지 여건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녹지의 보전과 확보 미흡,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도시녹화기반이 취약, 기존 구 도심지 녹지 공간 불균형, 공원조성의 저조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무 심기’운동을 통하여 도시 숲의 조성을 목표로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써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녹지 위주의 녹화사업을 추진하여왔던 것과는 달리 학교녹화,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인공구조물 녹화 등 녹화할 수 있는 곳은 빠짐없이 나무를 심어 실질적인 녹지량을 증대 시키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키며, 거점공원 및 녹지의 지속적 확충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운동과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나 개별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면에서나 시민의 참여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의제21’의 과제로서 공공건물뿐 아니라 민간건물의 담장도 허물고 그 자리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도시 내 녹지량을 늘리는 역할을 미비하지만 감당하고 있다.

3) 부산시 ‘내 사랑 부산운동’

부산시는 대구시의 ‘대구사랑시민운동’을 모토로 1999년 1월에 ‘내 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를 설립하고 이 운동을 시행하였다. 본 운동의 추진 배경은 1998년 이후 IMF의 경제적 위기를 전 시민이 함께 극복하고 부산을 21세기 세계의 중심도시로 세우기 위하여 400만 시민 전

1) SBS 8시 뉴스 보도내용. 2005.10.29.

체가 함께하는 향토사랑운동인 ‘내 사랑 부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내사랑부산운동’의 실천과제 중에 ‘푸른 부산 만들기’ 과제에서는 세부 실천과제로 시민 꽃·나무 심기, 도로변 수벽 조성, 내 집 앞 가로수 내가 가꾸기, 학교·공기관 담장 허물기, 낙동강 및 소하천 살리기, 바다 가꾸기 등을 설정하고 있다.

학교, 공기관 담장허물기는 도시 전체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나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대구의 담장허물기와 가장 닮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은 아니지만, 대구의 ‘대구사랑시민운동’과 부산의 ‘내사랑부산운동’은 비슷한 목표와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두 도시 모두 담장허물기 운동이 시민운동 내에 포함된 과제라는 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부산에서의 담장허물기 운동은 ‘내사랑부산운동’이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녹지 분야 과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구 단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4. 타도시와의 담장허물기운동의 비교

대구 담장허물기 운동은 관에서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어 시민들이 설득되어지는 식의 수직 하강(Top-Down)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에서 비롯되어 도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도시 공동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착하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운동(Bottom-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를 제외한 타도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의 경우 대부분이 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처음부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정책적사업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담장허물기를 통한 도시의 무너진 사회성의 회복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을 외형적으로 모델을 삼았을지는 모르나, 그 근본적인 정신이나 이념은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시민 의식 분석

1. 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대구 시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장허물기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대구시 중구 삼덕동, 수성구 황금동과 지산동의 거주자와 주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주택의 담장허물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만족 정도의 평가뿐 아니라 담장허물기로 인한 물리적·심리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담장허물기운동의 진정한 정체성과 시민들의 담장허물기에 대한 인지 정도를 파악하려한다(표 2).

표 2. 담장허물기에 대한 주민 의식 분석 지표

구분	분석요소	내 용
물리적 요소	경관	- 경관이 향상되었는가?
	휴식 공간	- 휴식공간이 생겨서 편리한가?
	위생	- 주변에 쓰레기의 양이 늘었는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보행환경	- 보행환경이 더 좋아졌는가?
	불법주차	- 불법주차가 늘어났는가?
심리적 요소	범죄	- 범죄가 늘어났는가?
	마을 특성	-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개인 재산의 과시	- 개인의 재산이나 권위를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가?
사회적 요소	이웃과의 유대관계	- 이웃과 나무나 화초를 가꾸는 빈도가 늘어났는가? - 이웃과 마주치는 기회가 늘었는가?
	놀이공간형성	- 놀이공간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환경적 요소	녹지량의 증가	- 녹지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는가?
	미기후 조절	- 미기후 조절에 도움이 되는가?
경제적 요소	담장허물기 시설 이용 빈도	- 근린공원보다 담장허물기를 통해 생긴 휴게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는가?

자료: 정응호 외 3명,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 환경과학논집 7(2002)에 의하여 재구성

담장허물기에 대한 시민 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를 평가요소로 선정하여 각각의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첫째,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담장허물기운동이 시행된 건물의 물리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주로 쾌적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담장허물기 자체에 대한 쾌적성과 시설주변 환경의 쾌적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담장허물기 시행 후에 이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조사한 본 연구에서 사회성은 담장을 허물기를 함으로써, 즉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후 이웃과의 변화된 의식 및 생활을 파악해 보는 것에 있다. 넷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담장이 허물어진 자리에 수목이나 화초를 식재함으로써 도시의 녹지량을 늘리는데 기여하였고, 이로 인한 변화를 주민들이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담장허물기운동의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또한, 실제로 시민들이 담장허물기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담장허물기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여 차후의 담장허물기운동 발전에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담장허물기운동이 대구시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는지, 또 원한다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를 파악하여 본 운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담장허물기운동의 발전에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설문조사는 사례지역 별로 조성시기와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며 설문조사 시간은 2005년 7월 26일~7월 29일 4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학부생들이 사례지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방문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16부 중 자료로써 신뢰도가 떨어지는 2부를 제외한 114부를 사용하여 설문지 회수율은 98%를 나타냈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각 대상지역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해 조사자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응답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설문대상지의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항목으로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 목적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담장허물기에 대한 설문응답자들의 만족도 및 의식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담장허물기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의식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각 부분별로 5개의 세부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결과를 수치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수치화 할 수 없는 설문조사내용은 대상자 개인의 의견을 메모 요약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셋째, 담장허물기의 나아갈 방향과 시민 의견을 알아보는 항목으로 각 질문마다 일정한 보기를 두어 설문응답자가 선택하게 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성향을 수치화 하여 분석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항목으로 성별, 연령대, 직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시민의식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남녀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는 총 응답자 114명 중 47명으로서 41.2%를 나타냈으며, 여자는 총 응답자 114명 중 67명이 응답하여, 58.8%로 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담장허물기를 실시한 주택가를 대상으로 평일 낮 시간대에 설문 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

응답자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0세미만의 청소년 및 청년층이 총 응답자 114명중 54명으로 전체의 4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장년층이 46.5%로 타나났고 60세 이상 노년층은 6.2%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기간이 학생들의 방학 기간중이었으므로,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30세 미만의 청년층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표 3).

이용자에 대한 이용 빈도 조사에서는 일주일에 2~3회가 30.7%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리고 월 1회 이상이 28.1%, 거의 매일이 23.7%, 연 1회 이상이

표 3. 연령구성비

연령	비율(%)
청년층(30세미만)	47.2
장년층(30세~60세)	46.5
노년층(61세 이상)	6.3

17.5%로 나타났다. 대상지가 주택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간이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2~3회를 이용한다는 의견을 합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상당한 비율이 담장허물기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4).

표 4. 이용빈도

이용빈도	비율(%)
거의매일	23.7
주2회~3회	30.7
월1회 이상	28.1
년 1회 이상	17.5

이용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산책 및 휴식” 이 71.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 “이웃집 방문”이 19.3%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담장허물기 시설이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공원과 같이 넓지 않고 시설도 부족하지만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지가 주택지이므로 “이웃집 방문”을 하면서 이웃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담장허물기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가는 길에 보려고”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6.1%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담장이 허물어진 것이 이웃주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표 5. 이용 목적

이용목적	비율(%)
산책 및 휴식	71.9
이웃집 방문	19.3
지나가는 길	6.1
약속장소	2.6

이용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저녁 시간 이후(18시~23시)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오후 시간대(13시~18시)에도 38.6%로 이와 거의 비슷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설문조사가 더운 7월에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시원한 밤 시간을 이용하여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낮 시간에는 주로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길에 이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표 6).

2) 회수율(%): 총 회수 부수 / 총 배포 부수 - 부적격 자료 × 100
(자료: de Vaus, 1991, p107)

표 6. 이용시간

이용 시간	비율(%)
오전(06시~13시)	21.9
오후(13시~18시)	30.6
저녁이후(18시~23시)	39.5

2)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주민 의식 분석

담장허물기운동으로 인한 도시생활공간의 변화와 주거 환경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의 담장허물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가 공공기관이 아닌 주택지 이므로 개인소유의 성격이 강하고 담장을 개방하는 주체 또한 집주인인 관계로 거주자와 주민 중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의식조사에서는 담장허물기를 시행한 곳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을 물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세부 항목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담장허물기에 대한 의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다. 이상의 설문결과를 수치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수치화 할 수 없는 설문 조사내용은 대상자 개인의 의견들은 메모 요약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1) 물리적 측면

담장허물기를 통한 물리적 측면에서는 ‘경관의 향상’, ‘휴식공간에 대한 만족도’, ‘쓰레기 배출’, ‘주변환경과의 조화’, ‘보행환경 개선’, ‘불법주차 증가’ 와 같은 6가지 세부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경관이 좋아졌다’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21.1%, ‘그렇다’ 62.3%, ‘보통이다’ 13.2%, ‘그렇지 않다’ 2.6%, ‘전혀 그렇지 않다’ 0.9%로 조사 되었다. 이 항목으로 볼 때 조사지역 이용자들이 담장을 허물기를 함으로써 막혔던 시야가 트이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변화된 경관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식공간이 생겨서 편리하다’에 대한 조사항목은 ‘매우 그렇다’ 11.4%, ‘그렇다’ 42.1%, ‘보통이다’ 13.2%, ‘그렇지 않다’ 2.6%, ‘전혀 그렇지 않다’ 0.9%로 나타났다. 이 항목 역시 이용자들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담장허물기를 통해 물리적 공간이 양호한 환경으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쓰레기가 더 많아졌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그렇다’에 응답한 사람은 8.8%, ‘보통’ 34.2%, ‘그렇지 않다’ 50.0%, ‘전혀 그렇지 않다’ 7.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주택가의 쓰레기 문제는 오히려 담장허물기 후에 더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장허물기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6.7%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

하였고, ‘그렇다’ 56.1%, ‘보통이다’ 21.9%, ‘그렇지 않다’ 4.4%, ‘전혀 그렇지 않다’ 0.9%를 나타내었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 진행된 삼덕동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황금동의 경우도 다른 주택지에 비해 많은 주택들이 참가하여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 운동이 마을 전체의 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행 환경이 더 좋아졌다’에 대한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17.5%, ‘그렇다’ 59.6%로 전체적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주민들은 평가했다. 좁은 주택가의 골목에 담장을 허물게 됨으로써 골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보행공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물리적 측면의 마지막 세부 항목인 ‘불법주차가 증가하였다’에 대한 응답으로는 ‘보통이다’가 36.8%, ‘그렇지 않다’가 전체의 46.5%로 담장허물기 이전이나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주차문제는 담장허물기운동에서는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대구시 주택가의 담장허물기를 실시한 곳에 주차공간보다는 녹지나 휴게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7. 물리적 측면 설문조사 결과 단위(%)

구분	질문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물리적 측면	주변경관이 좋아졌다	21.1	62.3	13.2	2.6	0.9
	휴식공간이 있어 편리	11.4	42.1	33.3	7.9	5.3
	쓰레기가 많아졌다	0	8.8	34.2	50.0	7.0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16.7	56.1	21.9	4.4	0.9
	보행환경이 좋아졌다	17.5	59.6	21.9	0.9	0
	불법주차가 늘어났다	0.9	12.3	36.8	46.5	3.5

(2) 심리적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담장허물기를 시행하면서 가장 우려 되는 부분인 ‘범죄발생’에 관한 항목과 담장허물기를 실시한 지역의 주민들이 담장허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담장허물기가 ‘동네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와 ‘개인 재산, 권위를 과시한다’는 세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표 4>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먼저, 담장허물기를 통하여 ‘범죄발생에 취약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4.4%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보통이다’ 32.5%, ‘그렇지 않다’ 54.4%, ‘전혀 그렇지 않다’ 8.8%로 담장허물기운동이 범죄발생에 취약하지 않다는 평가를 했다. 이는 주택가의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 된지 7년 동안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장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 되고 있는 보호기능에 대해 담장허물기가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재산 및 권위를 과시 한다’에 대한 조사 항목은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 12.3%, ‘보통이다’ 36.0%, ‘그렇지 않다’ 5.3%, ‘전혀 그렇지 않다’ 12.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담장허물기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도 별 문제가 없으며,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문제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을 과시 하기 위해서 담장을 일부러 허문다거나 자신만의 정원을 가꾼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담장허물기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담장허물기가 ‘동네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그렇다’가 55.3%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36.0%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설문에 참여한 90% 이상의 주민들이 담장허물기를 자신의 동네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의 경우 담장허물기 운동의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렸다고 할 수 있겠다. 담장허물기를 통하여서 특성 없는 삭막한 도시의 경관에 생기를 불어 넣고 또한 이는 더 나아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8. 심리적 측면 설문조사 결과 단위(%)

구분	질문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심리적 측면	범죄발생에 취약	0	4.4	32.5	54.4	8.8
	개인 재산, 권위를 과시	3.5	12.3	28.9	43.0	12.3
	마을특성을 잘 나타냄	2.6	55.3	36.0	5.3	0.9

(3)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는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웃과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졌다’에 대한 항목은 ‘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53.5%, ‘보통이다’ 33.3%, ‘그렇지 않다’ 6.1%, ‘전혀 그렇지 않다’ 1.8%를 나타내었다. 또한 ‘화초나 나무를 이웃과 가꿀 기회가 많아졌다’에 대한 항목은 ‘매우 그렇다’ 6.1%, ‘그렇다’ 34.2%, ‘보통이다’ 37.7%, ‘그렇지 않다’ 16.7%, ‘전혀 그렇지 않다’ 5.3%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항목에서 나타난 결과로는 담장을 허물기가 이웃과 교류 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과 이웃과의 유대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현대 도시에서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웃이라는 존재를 다시 찾게 해주고 생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들의 놀이 공간 형성에 기여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9.6%, ‘그렇다’ 48.2%, ‘보통이다’ 28.9%, ‘그렇지 않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1.8%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담장을 허

물고 조정시설이나 휴식시설을 한 곳이 뛰어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표 9. 사회적 측면 설문조사 결과 단위(%)

구분	질문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적 측면	이웃과 자주 마주친다	5.3	53.5	33.3	6.1	1.8
	이웃과 나무를 가꿀 기회가 많아졌다	6.1	34.2	37.7	16.7	5.3
	아이들 놀이공간 형성에 기여한다	9.6	48.2	28.9	11.4	1.8

(4) 환경적 측면

대구시 담장허물기 운동은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도시 환경의 물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이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 의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식을 살펴보았다(표 6).

먼저 ‘녹지가 늘어났다’는 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1.1%, ‘그렇다’ 57.9%, ‘보통이다’ 15.8%, ‘그렇지 않다’ 4.4%, ‘전혀 그렇지 않다’ 0.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담장을 허문 자리에 대부분 나무를 식재하거나 화초류를 심음으로써, 도시의 부족한 녹지량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에게 답답하고 삭막한 색깔의 담장 대신 푸르름을 우리 눈앞에 선사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찾는 번거로움 대신 바로 집 앞에서 자연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민들에게 선사해 주었다. 또한 ‘녹지로 인해 여름에 시원함을 느낀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9.6%, ‘그렇다’ 53.5%, ‘보통’ 30.7%, ‘그렇지 않다’ 4.4%, ‘전혀 그렇지 않다’ 1.8%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담장허물기를 통해 형성된 소규모의 녹지가 이용자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함과 청량감을 선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환경적 측면 설문조사 결과 단위(%)

구분	질문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환경적 측면	녹지가 증가했다	21.1	57.9	15.8	4.4	0.9
	여름철에 시원함을 느낀다	9.6	53.5	30.7	4.4	1.8

실제로 김수봉(2002)은 “대구의 녹지율은 1994년 11.28%에서 1999년 15.64% 증가했으며, 녹지면적 10%가 늘어날 때마다 0.9℃의 기온이 내려간다”고 연구 결

과를 발표하였다³⁾.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담장허물기 운동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이론적 고찰에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공원녹지 계획의 패러다임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비제도권 공원녹지를 통한 계획⁴⁾임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장허물기 운동은 상당한 이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경제적 측면

담장허물기의 경제적 측면은 담장허물기가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거리상으로 먼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 대신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근린공원을 대신하여 동네의 담장허물기가 시행된 곳을 이용 한다’라는 세부 항목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은 <표 7>과 같이 나타났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우 그렇다’ 3.5%, ‘그렇다’ 27.2%, ‘보통이다’ 43.9%, ‘그렇지 않다’ 16.7%, ‘전혀 그렇지 않다’ 8.8%로 응답자 중 70%이상이 근린공원대신 담장허물기를 통한 휴게 시설이나 녹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두 가지 효과를 기대 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네에 담장허물기를 통하여 조성된 소규모 휴게시설을 거리상으로 먼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을 대신하여 이용함으로써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둘째,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비용과 담장허물기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비용으로 담장허물기를 더 많이 지원 할 수 있고, 담장허물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서 지금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담장허물기 운동에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담장허물기 운동의 환경적, 경제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경제적 측면 설문조사 결과 단위(%)

구분	질문사항	단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측면	근린공원을 대체하여 주변 담장허물기를 시행한 곳을 이용한다	3.5	27.2	43.9	16.7	8.8

3)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 분석

(1) 담장허물기의 장점

담장허물기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체험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대구시 담장허물기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항목은 ‘주변경관 개선’이 전체의 38.6%로 가장 큰 장점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규모 녹지대 및 휴게공간의 확보’가 32.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담장허물기로 인한 체감하는 가장 큰 효과는 물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담장허물기를 통해서 삭막했던 마을 어귀에서도 나무와 식물을 통하여 자연을 접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장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측면인 ‘이웃과의 친목’ 14.0%, ‘특성 있는 마을 조성’ 7.9%, ‘어린이 놀이 공간의 조성’이 4.4%로 그 뒤를 따랐는데, 물리적인 변화와 효과보다는 시민들에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담장허물기를 통하여서 이웃들과의 유대관계가 증진되며,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담장허물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이웃의 담장허물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천천히 전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의 담장허물기운동을 통하여서 대구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득한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 만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차 공간의 확보’는 2.6%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대구시 담장허물기 운동은 주차문제와는 큰 연계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담장허물기 운동이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시민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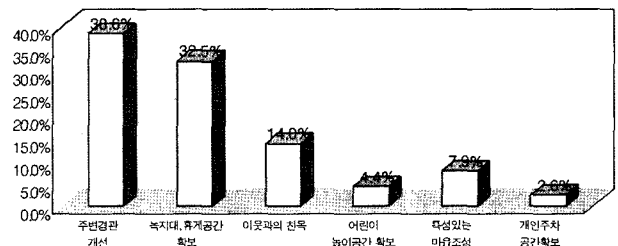


그림 2. 담장허물기의 장점 분석

(2) 담장허물기운동의 활성화 방안

담장허물기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을 묻는 조사항목에서는 ‘재정적 지원의 확대’ 32.5%,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28.6%, ‘지속적인 홍보’ 19.3%, ‘사후 유지 및 관리의 지원’ 15.8%, ‘기존시행자의 적극적 권유’ 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많은 대구시민들이 담장허물기의 효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담장허물기운동에 직접 참여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담장을 허무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담장허물기에 참여를 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시설 당 300만원 정도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상 신청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효과가 큰 시설부터 우선순위

3) 김수봉·김해동(2002), 도시의 수목이 기온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경학회지 제30권 제5호, p.25

4) 김수봉(1999), 오픈스페이스의 개념과 대구시 공원녹지 계획, 한국정원학회지 제17권 제4호, p.179

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대상을 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주택가의 담장허물기 사업은 개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담장허물기 활성화 방안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담장허물기 운동 초기의 의미를 살려 담장을 허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무는 의의와 그 효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 시민들이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그 근본 의의를 이해하고 이 운동에 참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로 조사과정 중에 담장허물기운동이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시작된 만큼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설명회나 홍보 등이 요청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1999년 담장허물기가 대구사랑시민회의의 중점 과제로 채택된 후 2002년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으나, 그 이후에는 감소 혹은 정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담장허물기운동은 관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닌 만큼 시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사후 유지 및 관리의 지원'의 경우 담장허물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담장허물기후 조경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공을 담당 한 조경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담장허물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장허물기를 시행한 장소에 새롭게 조성된 녹지나 화원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자문조경업체가 자원봉사 형태로 원가시공을 통해 담장허물기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하자보수 발생 시 입장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담장허물기 참여 초기에 참여 시설주의 조경시설 및 수목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고려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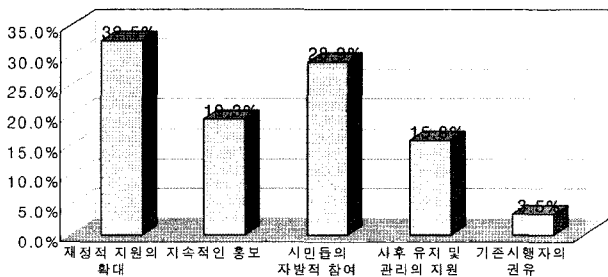


그림 3. 담장허물기운동의 활성화 방안

(3) 담장허물기운동의 향후 진행 방향

담장허물기운동의 향후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계속 진행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이 이미 시민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장허물기운동이 앞으로 계속 진행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응답자의 43.9%가 담장허물기운동이 '대구시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37.7%가 응답하였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변화에 시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삭막한 도시경관에 담장허물기가 신선한 돌파구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담장허물기가 관에서 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닌 시민 한 사람의 자발적인 행동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이라는 점에 대구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이 파악 되었다. 특정한 목적을 시행되는 사업에 시민들이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앞으로 담장허물기운동이 나아가야 할 근본정신이라고 사료된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1.4%로 담장허물기운동이 시민들을 대구사랑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구시에 이 운동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응답자의 7%는 '타도시의 선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미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과 타 도시에 모범이 되고 있는 담장허물기운동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알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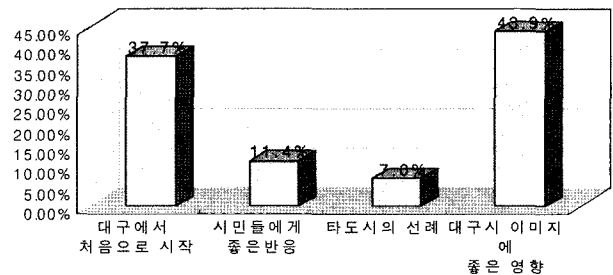


그림 4. 담장허물기운동의 향후 진행 방향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에서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을 기하여 지금까지의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을 되돌아보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구시민들이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의 정체성을 정립해 보았다. 또한 시민들의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봄으로써 앞으로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담장허물기운동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무엇보다 주택가의 주차문제해결의 대안으로 담장허물기

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타도시(특히 서울특별시)와 대구시의 담장허물기운동은 근본적인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담장허물기운동이 개인의 재산이나 권위를 과시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는 반응을 통하여 이 운동이 대구시민 누구나가 참여 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로운 분석요소였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담장허물기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환경적측면에서는 담장허물기를 통해서 마을에 녹지가 증가하였다고 반응하였으며, 이러한 녹지공간을 통하여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청량감을 얻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또한 담장허물기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하여 담장허물기운동이 주민들이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담장허물기운동에 지원해 줌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교 했을 때에 더 큰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대구시민들이 생각하는 담장허물기운동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사·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생각한 담장허물기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 경관 개선과 소규모 녹지 및 휴게 공간의 확보였고 담장허물기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의 확대로 나타났다. 재정적 지원은 민과 관이 담장허물기운동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형평성에 맞도록 조취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담장허물기운동이 대구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운동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평가하였다. 앞으로도 본래의 담장허물기운동의 그 취지를 잘 살려 더 많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대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범위가 대구시 전체가 아닌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과 대상지 성격과 입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 대상지를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담장허물기운동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적 분석에 관한 연구가 시행된다면 담장허물기운동에 관한 좀 더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며, 객관적인 정보가 되어 담장허물기운동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광남일보(2004), 담장허무니 마음의 벽 '스르르' [검색 2005년 8월 9일] 인터넷주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2&article_id=0000108830§ion_id=102&menu_id=102
2. 권영길(2003), 담장개방 유형에 따른 주민 및 이용자 평가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3. 김수봉 등(2002), 환경계획 이론과 실제, 대구 : 흥익출판사
4. 김수봉(2004), 공원녹지정책, 서울, 대영문화사
5. 김수봉(1999), 대구시 환경녹지 계획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 17권 제 3호, pp.99-100
6. 김수봉(1999), 오픈스페이스의 개념과 대구시 공원녹지 계획, 한국정원학회지 30, pp.179-189.
7. 김수봉(2004), 한국공동체 도시환경 개선 사업 평가 :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사업을 사례로, 한국환경과학회지 제 13권 제 10호, pp.836-870
8. 김수봉·장원동(1999), 대구시 공원녹지의 계획·정책방향 연구, 환경과학논집 제 4권 제 1호, pp.21-30
9. 내사랑부산, 내사랑부산 추진사업 [검색 2005년 8월 11일]. 인터넷주소: <http://www.ilovebusan.org>
10. 대구광역시(2005),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추진. 대구, 대구광역시청
11.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담장을 허물면 세상이 보인다
12.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2001), 대구사랑운동 논문집
13.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2005),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14. 부산광역시(2005), 2005년 녹지·공원 업무지침. 부산, 부산광역시청
15. 서주환 등(2002), 공공기관의 담장개방효과가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 구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9권 6호, p.23
16. 손상락·이시화(2001), 삶터자치의 마을만들기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대구시 담장허물기운동, 지역사회개발연구지 제26권 제1호, pp.10-12
17. 정응호 등(2002),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주민의식 연구, 환경과학논집 제 7권 제 1호, pp.13-17
18. 조득환·김묘정(2004),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와 마을만들기의 연계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고서(II)
19. 최병두(2003), 도시속의 환경 열두달(봄, 여름). 서울 : 한울
20. 푸른광주21협의회(2003), 푸른광주 21 평가보고서 2002. 광주 : 푸른광주21협의회
21. 푸른광주21협의회(2004), 푸른광주 21 평가보고서 2003. 광주 : 푸른광주21협의회
22. 푸른광주21협의회, 푸른광주 21 협의회 행동강령 [검색 2005년 8월 13일]. 인터넷 주소: <http://www.greengj21.or.kr/act.html>
21. Green 인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배경, 실천계획 [검색 2005년 8월 9일]. 인터넷 주소: <http://tree.incheon.go.kr>
22. 문승국(1998),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接受: 2005. 12. 21)